

① 대학 밖 학술단체의 연구안전망 구축 방안

대학의 기업화와 인문학 통폐합 등으로 인해 대학 내 기초학문이 쇠락하는 상황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및 지식의 재생산 위기가 수년간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문사회 분야 신진연구자들의 실태와 관련한 여러 조사연구가 수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지식 학습과 연구활동 재생산을 위해 대학 밖 학술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연구자들의 자율적 조직을 통해 구성되는 독립 학술단체들은 개별 대학에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적·네트워크적 자원들을 생산 및 환류하고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 지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으로 대학 밖 인문사회 학술단체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학술단체의 학문적 자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적 토대와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는 AI 시대 윤리 정립 방안 연구

최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Open-AI사의 ChatGPT가 출시되자마자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AI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일상 경험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훈련데이터에 내재한 편견이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인공지능 기반 추천 알고리즘이 인간의 자율적 선택을 위협하는 등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제 사회는 유네스코의 AI 윤리권고(2021), EU의 AI 윤리법 초안(2021), 미 백악관의 AI 권리장전 청사진(2022) 등 AI의 혁신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인류 전체가 골고루 향유하면서 동시에 기본인권 등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고려와 제도 마련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AI가 지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인간과는 사뭇 다르다는 기

술적 특징을 반영하여 인간적 가치를 AI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려는 IEEE의 노력(2019)처럼 인문학적 성찰과 실천적 방안 모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마다 처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에 AI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과 대비책 모색은 이를 충분히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AI 시대에 제기되는 연구, 교육, 사회 분야에서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과 대비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③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인문학 기여방안 연구

기생충, 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를 만들어낸 문화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자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 동력이다. 이러한 한류가 미래에도 계속 유지·확대되려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인문학은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첫째,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공정한 경쟁, 종사자 인권보호, 세계 시민 의식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인문학이 콘텐츠산업에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문학이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분야와 역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간 정부에서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문학 활용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정책영역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